



"사내 못한 것은 사랑에 가서 먹이나 갈아 주고 계집 못한 것은 젓통만 크다"

뜻: 남자든 여자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, 겉모습이나 쓸데없는 능력만 내세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무능 · 조롱 · 편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사	내	↓	못	난	↓	것	은	↓	사	랑	에						
가	서	↓	먹	이	나	↓	갈	아	↓	주	고						
계	집	↓	못	난	↓	것	은	↓	젓	통	만	↓	크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사	내	↓	못	난	↓	것	은	↓	사	랑	에						
가	서	↓	먹	이	나	↓	갈	아	↓	주	고						
계	집	↓	못	난	↓	것	은	↓	젓	통	만	↓	크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사내] [못난] [것은] [사랑에] [가서] [먹이나] [갈아] [주고] [계집] [못한] [것은] [젓통만] [크다]

웹에서 보기

